

답) 4(④는 정의적 측면의 , 즉 정서적 변화라고 봐야 한다.)

문 11. 어문 규범에 맞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 ① 출산율, 자장면, 타슈켄트(Tashkent)
- ② 갯수, 숫양, 모차르트(Mozart)
- ③ 휴게소, 깊숙이, 컨셉트(concept)
- ④ 제삿날, 통틀어, 호치민(Hô Chi Minh)

답) 1(②개수(個數) ③콘셉트, ④호찌민으로 고쳐야 한다.)

문 12. 밑줄 친 어휘가 적절하게 쓰이지 않은 것은?

- ① 싱그러운 봄나물이 입맛을 돋우었다.
- ② 불길이 걸잡을 수 없이 번져 나갔다.
- ③ 바닷가에서 새우를 불에 그슬어서 먹었다.
- ④ 나는 열 문제 중에서 겨우 세 개만 맞혔다.

답) 2(②~걸잡을~)

문 13. 다음 ㉠ ~ ㉣ 중 “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과 가장 밀접한 표현은?

松根을 베어 누어 꽃즙을 얼핏 드니, 꿈에 흰 사람이 날드려 날은 말이, 그뒤를 내 모르랴, ㉠ 上界에 眞仙이라. 黃庭經 一字를 엮디 그릇 닦고, 人間의 내려와서 우리를 쫓는다. 저근덧 가디 마오. 이 술 흰 잔 머저 보오. ㉡ 北斗星 기우려 滄海水 부어 내여, 저 먹고 날 머겨늘 서너 잔 거후로니, 和風이 習習하야 兩腋을 추혀 드니, 九萬里 長空에 저기면 놀리로다. 이 술 가져다가 四海에 고로 논화, ㉢ 億萬蒼生을 다 醉케 밍근 後의, 그제야 고터 맛나 또 흰 잔 흐갓고야. 말 디자 鶴을 타고 九空의 올라가니, 空中 玉簫 소리 어제런가 그제런가. 나도 즘을 씌여 바다홀 구버 보니, ㉣ 기희를 모르거니 人들 엮디 알리. 明月이 千山萬落의 아니 비췌 딕 업다.

- 정철, ‘관동별곡’ 중에서 -

- ① ㉠ ② ㉡ ③ ㉢ ④ ㉣

답) 3(선천하지우이우-먼저 천하의 근심을 걱정하고 후천하지라이라-뒤에 천하의 즐거움을 즐긴다는 뜻으로 먼저 백성을 걱정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묻는다)

문 14. 밑줄 친 부분을 한자로 올바르게 바꾼 것은?

○ 정기 국회에 새 법안을 상정하였다.
○ 우리 학교는 많은 인재를 배출한 명문 학교이다.

- ① 詳定 - 排出 ② 上程 - 輩出
- ③ 上程 - 排出 ④ 詳定 - 輩出

답) 2(상정(上程) - 토의할 안건을 회의에 내어 놓음, 배출(輩出) - 훌륭한 인재나 인물이 잇따라 나거나 그러한 사람을 잇따라 냄.)

문 15. 다음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길 위에 두 돌부처 벗고 굽고 마주 서서
바람비 눈서리를 맞도록 맞을망정
人間의 離別을 모르니 그를 불워하노라.

- ① 돌부처에 대한 신앙을 풍자하고 있다.
- ② 작자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마지막 줄에 있다.

- ③ 부정의 존재에 빗대어 작자의 감정을 표현했다.
- ④ 한 줄은 모두 네 개의 호흡 단위(음보)로 끊어진다.

답) 1(‘인간의 이별을 모르’고 ‘서 있는 돌부처를 부러워하고’ 있다.)

문 16. 다음 글의 바로 앞부분에 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위의 글에서도 사람의 성품과 지혜가 단계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을 해도 사회의 가치와 규범, 법과 도덕, 그리고 일상적인 예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개념적으로 표현한다면 완벽하게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한, 즉 사회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의 프로이트나 에릭슨, 피아제 등과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동양에서도 인지의 내용이 단계적으로 변화·확장된다고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① 少年易老學難成 ② 人生七十古來稀
- ③ 他山之石可以攻玉 ④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

답) 4(첫문장에서 힌트를 찾아야 한다. ‘위의 글에서도 사람의 성품과 지혜가 단계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① 소년이로학난성 - 소년은 늙기 쉽고 배움은 이루기 어렵다.
- ② 인생칠십고래희 - 인생 칠십은 예로부터 드물다.
- ③ 타산지석가이공옥 - 다른 산의 돌도 다듬으면 옥을 만들 수 있다.
- ④ 칠십이종심소욕불유구- 칠십이 되면 마음에 하고자 하는 바대로 해도 법도에 넘치지 않는다.)

문 17. 다음 글을 문맥에 맞게 배열한 것은?

(가) 그렇다면 어찌해야 종단 말인가? 우린 장차 어찌해야 하는가? 글쓰기를 그만두어야 할 것인가?
(나)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반드시 옛것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리하여 세상에는 마침내 옛것을 모방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는 주(周)나라의 제도를 본뵈던 역적 왕망(王莽)이 예악(禮樂)을 수립했다는 격이며, 공자와 얼굴이 닮은 양화(陽貨)가 만세(萬世)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격이다. 그러니 어찌 옛것을 모범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다) 아아! 옛것을 모범으로 삼는 사람은 낡은 자취에 구애되는 것이 병이고, 새것을 만들어 내는 사람은 상도(常道)에서 벗어나는 것이 탈이다. 참으로 옛것을 모범으로 삼되 변통할 줄 알고, 새것을 만들어 내되 법도가 있게 할 수 있다면, 지금 글이 옛날 글과 같을 것이다.
(라) 그렇다면 새것을 만들어야 하는가? 그리하여 세상에는 마침내 괴상하고 허황되고 지나치게 치우친 글을 쓰면서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는, 임시 조치로 세 길 높이의 나무를 옮기게 하는 것이 통상의 법령보다 중요하다는 격이고, 이연년(李延年)의 새로 만든 간드러진 노래를 종묘(宗廟)의 음악으로 연주하여도 좋다는 격이다. 그러니 어찌 새것을 만들겠는가?
- 박지원, ‘조정집서(楚亭集序)’ 중에서 -

- ① (다) - (가) - (라) - (나)
- ② (나) - (가) - (다) - (라)
- ③ (다) - (라) - (나) - (가)
- ④ (나) - (라) - (가) - (다)

답) 4(문장을 쓰는 방법은 옛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다 - 진정한 문장

쓰기의 방법은 무엇인가? - 옛것을 모범으로 삼되 변통할 줄 알고, 새것을 만들어 내되 법도가 있게 할 수 있어야 한다 - 새것을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는 식으로 이어져야 한다.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옛 사람에 책 읽기를 잘 한 사람이 있는데 공명선公明宣이 바로 그 사람이다. 옛 사람에 글을 잘 지은 이가 있으니 회음후 한신韓信이 그 사람이다. 왜 그럴까? 공명선이 증자에게서 세 해를 배웠는데 책을 읽지 않자 증자가 이를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선생님께서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것을 보았고, 선생님께서 손님 접대하시는 것을 보았으며, 선생님께서 조정에 처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배웠지만 아직 능히 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찌 감히 배우지도 않으면서 선생님의 문하에 있겠습니까?"

물을 등지고 진을 치라는 것은 병법에 보이지 않으므로 여러 장수들이 따르지 않는 것이 당연했다. 그러자 회음후 한신은 말하기를, "이것이 병법에 있는데 생각건대 그대들이 살피지 않은 것일 뿐이다. 병법에 '죽을 땅에 놓인 뒤에 산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 까닭에 배우지 않음을 잘 배우는 것으로 여긴 것은 노남자魯男子의 홀로 지냄이고, 부뚜막 숫자를 늘이는 것을 부뚜막 숫자를 줄이는 것에서 본떠온 것은 우승경虞升卿의 변화를 앎이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하늘과 땅이 비록 오래 되었지만 끊임없이 생명을 내고, 해와 달이 비록 오래 되었어도 그 광휘는 날마다 새롭다. 책에 실려 있는 것이 비록 방대하지만 가리키는 뜻은 제각금 다르다. 때문에 날고 잠기고 달리고 뛰는 온갖 생물 중에는 간혹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있고, 산천 초목에는 반드시 비밀스런 靈이 있게 마련이다. 썩은 흙에서 지초芝草가 나오고, 썩은 풀이 반딧불로 화한다. 예禮에는 송사訟事가 있고 악樂에는 의논이 있으며, 글은 말을 다하지 못하고, 그림은 뜻을 다하지 못한다. 어진 이가 이를 보면 인仁이라 하고, 지혜로운 자가 이를 보면 지智라고 한다. 그런 까닭에 백세 뒤의 성인을 기다리더라도 의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선 성인의 뜻이고, 순임금과 우임금이 다시 살아나 일어나신다 해도 내 말은 고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은 뒷 어진이의 말이다. 우직禹稷과 안회顔回가 그 법도가 한가지이나, 소견이 좁아 융통성 없는 것과 제멋대로 공손치 않음은 군자가 말미암지 않는다.

박씨의 아들 제운齊雲은 나이가 스물 셋인데 문장에 능하여 호를 초정楚亭이라 하며 나를 좇아 배운 것이 여러 해가 되었다. 그 글을 지음은 선진양한先秦兩漢의 글을 사모하였으나 그 자취에 얽매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진부한 말을 제거하기에 힘쓰다 보니 간혹 근거 없는 데서 옳고, 논의를 세움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간혹 법도에 어긋남에 가까웠다. 이는 명나라의 여러 작가들이 법고와 창신에 있어 서로서로를 헐뜯으면서도 함께 바름을 얻지 못하고 나란히 말세의 자질구레함으로 떨어져서, 도를 지키는데 보탬이 없이 한갓 풍속을 병들게 하고 교화를 손상시키는 데로 돌아간 것이니, 나는 이것을 염려한다. 새것을 만들어 교묘하기 보다는 차라리 옛것을 본받아 보잘 것 없는 것이 더 나으리라.

내 이제 그의 《초정집》을 읽고, 공명선과 노남자의 독실한 배움을 나란히 논하고서 회음후 한신과 우후의 기이한 계책을 내미 예전의 법을 배워 잘 변화하지 않음이 없음을 보였다. 밤에 초정과 더불어 이와 같이 말하고, 드디어 그 책머리에 써서 권면하노라.)

문 1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도요새 무리를 동진강 삼각주에서 발견했을 때, 나는 마치 헤어진 부모와 동기간과 약혼녀를 만난 듯 반가웠다. 너들이 휴전선 위의 통천을 거쳐 여기로 날아왔으려니, 하고 대답 없는 물음을 던질 양이면 그만 울컥 사무쳐 오는 향수가 내 심사를 못 견디게 끊어 놓곤 했다. 가져온 술병을 기울이며 나는 새떼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말하고 내가 새가 되어 대답하는 그런 대화를 누가 이해 하리오. 새가 고향 땅의 부모님이 되고, 또는 형제가 되고, 어떤 때는 약혼자가 되어 나에게 들려주던 그 많은 이야기를 나는 기쁨에 들떠, 때때로 설움에 젖어 화답하는 그 시간만이 내게는 살아 있는 진정한 시간이었다. ... (중략) ... 그래서 지금 보는 바다는 예전보다 파도가 훨씬 높았고 해염을 쳐 북상을 하면 며칠 내 고향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던 그 넓이가 더욱 까마득히 넓게 보였다. 그리고 ㉡ 철새나 나그네새는 휴전선을 넘어 자유로이 왕래하건만 나는 그곳으로 갈 수 없다는 안타까움만이 해가 갈수록 내 이마에 깊은 주름을 새길 뿐이었다.
-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 중에서 -

- ① ㉠은 '나'에게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이고, ㉡은 '나'와 대비되는 존재이다.
- ② ㉠은 '나'가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정서를 느끼는 대상이고, ㉡은 '나'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 ③ ㉠은 '나'의 내적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하는 소재이고, ㉡은 '나'의 내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소재이다.
- ④ ㉠은 '나'에게 고향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이고, ㉡은 '나'에게 고향에 대한 향수를 식게 하는 존재이다.

답) 1(본문의 '도요새 무리를 동진강 삼각주에서 발견했을 때, 반가웠던 것은 ... 그만 울컥 사무쳐 오는 향수가 내 심사를 못 견디게 끊어 놓곤 했다'에서 향수의 매개체가 되어 있고, '철새나 나그네새는 휴전선을 넘어 자유로이 왕래하건만 나는 그곳으로 갈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되어 있어서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으로 내 현실과는 대비되어 있다.)

문 19.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학철학자 칼 포퍼는 과학 연구 과정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대표 이론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라도 그것의 장점이 아니라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견하려 노력해야 하며 문제점이 정말로 발견되었을 때는 기존 이론을 폐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긍정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더 나은 이론을 도출하려는 도전적 태도로, 부정적으로 보면 현실적인 대안을 확보하기 전에 무책임하게 여러 장점을 지닌 이론을 폐기하는 완고한 태도로도 읽힐 수 있는 이러한 입장을 그는 '비판적'이라고 규정했다.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 과학자는 어떤 편견으로부터도 자유로우면서 순전히 경험적 근거와 논리적 추론을 통해 과학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포퍼의 지적 영향력은 과학철학 분야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는 매우 영향력 있는 정치철학자이기도 했다. 전체주의와 역사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은 극단적인 자유주의를 옹호하지는 않으면서도 결국에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자발적 선택을 부각하는 입장으로 나아갔다. 개인의 자발적 선택을 강조하는 근거는, 역사란 미리 정해진 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개인의 자발적 행동이 모여 개인의 수준에서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로 나타난다는 생각이었다.

- ① 비판적 태도는 논리와 경험을 중시한다.

- ② 비판적 태도는 역사주의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 ③ 비판적 태도는 불특정 개인보다 사회를 먼저 고려한다.
- ④ 비판적 태도는 갈등하는 이념 간의 타협점을 찾는 데 유용하다.

답) 1(본문의 ‘오랫동안 대표 이론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라도 그것의 장점이 아니라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견하려 노력해야 하며 문제점이 정말로 발견되었을 때는 기존 이론을 폐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에서 힌트를 찾아야 하고,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 과학자는 어떤 편견으로부터도 자유로우면서 순전히 경험적 근거와 논리적 추론을 통해 과학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경험과 논리를 중시함을 알 수 있다.)

문 20.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설가는 자신이 인생에서 발견한 것을 이야기로 풀어 쓰는 사람이다. 그가 발견하는 것은 사회의 모순일 수도 있고 본능의 진실이거나 영혼의 전율일 수도 있다. 어쨌든 소설가는 그것을 써서 발견자로서의 책임을 짊어진다.

인터넷 시대의 디지털 환경은 이 같은 발견자의 자신감을 뒤흔들어 놓았다. 심란한 얼굴로 소설의 위기를 말하는 작가들이 늘어났다. 멀티미디어의 등장으로 독자들의 관심이 문학에서 멀어져 가는 현상은 차라리 표면적인 위기라고 한다. 정보 혁명이 초래한 현실의 복잡성 때문에 인생을 관찰하고 뭔가를 발견하기 힘들다는 무력감이야말로 한층 더 심층적인 위기라는 것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인터넷의 쌍방향성은 독자와 작가의 구별을 없애 버렸다. 또 독자 스스로 이야기의 중요 지점에 개입하여 뒷이야기를 선택할 수 있는 하이퍼텍스트 픽션이 등장했다. 미국에서 CD로 출판된 셸리 잭슨의 하이퍼텍스트 픽션 ‘패치워크 걸(Patchwork Girl)’은 상업적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다중 인격의 역동성과 여성적인 몸의 상징성을 잘 표현한 걸작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소설은 빠른 속도로 시뮬레이션 게임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언어에 대한 날카로운 감수성으로 삶의 궁극적인 의문들을 다뤄 온 소설가들에게 작품이 네트워크 위에 떠서 음악, 사진, 동영상과 결합돼 가는 이런 변화는 확실히 당혹스럽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소설가의 존재 이유를 뒤흔들 만큼 본질적인 변화일까. 단연코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 ① 정보 혁명과 소설의 몰락
- ② 디지털 시대와 소설가의 변화
- ③ 소설가의 사명과 소설의 본질
- ④ 소설과 하이퍼텍스트 픽션의 대결

답) 2(인터넷 시대의 디지털 환경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 얘기하면서, 하이퍼텍스트 픽션이 등장했다고 말하면서 소설가의 존재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데서 힌트를 찾아야 한다.)